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범죄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강탈하는 영화를 '케이퍼 무비'라고 한다. 영화 '도둑들'이나 '오션스 일레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른 영화들이 부자들의 보석 등을 훔친다면, 영화 '도굴'은 땅속에 잠들어 있는 문화재를 훔친다.

글 편집실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노동자와 수지진동증후군

영화 <도굴(2020)>을 통해 본
수지진동증후군



땅속 문화재를 흠치는 도굴꾼들의 한판

바다가 무슨 맛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쓰디쓴 짠맛이라고. 그럼 흙은 무슨 맛이라고 묻는다면?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흙 맛을 보는 사람이 있다. 영화 '도굴'의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는 흙 맛으로 땅속 보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큰 판을 찾던 그는 큐레이터 윤세희 실장(신혜선)과 손을 잡는다. 윤 실장은 문화계 거물 진 회장(송영창)을 대신해 문화재를 불법으로 모으고 해외 큰손들에게 판매한다. 진회장은 이른바 '왼손으로 주면 오른손에 현찰을 쥐어주는' 도굴꾼 세계의 큰손이다. 윤 실장은 중국에 있는 고구려 벽화를 도굴해오는 일을 맡긴다. 이를 위해 도굴꾼 존스 박사(조우진)과 삽질의 달인 삽다리(임원희)와 팀을 짝다. 벽화 도굴에 성공한 강동구는 서울 한복판 강남 선릉에 묻혀 있다는 보물을 타깃으로 잡고, 윤 실장과 진 회장을 끌어들이며 더 큰 판을 노린다.

영화 '도굴'은 황영사 석탑부터 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분 벽화 등을 실제 문화재처럼 제작해 보는 재미를 준다. 여기에 강남 한복판의 선릉까지 땅을 파고 가는 모습, 무덤을 둘러싼 회벽을 녹이는 등 다양한 도굴 기술과 과정도 한몫한다. 그러나 도굴꾼들에게 국보급 문화재를 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도굴에 필요한 다양한 진동장비들에 의한 건강 문제다.

진동공구 사용 시 스트레칭과 휴식 필수

영화 '도굴'의 주인공들은 문화재를 흠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중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면 특정 직업병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손이 저리거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수지진동증후군이다. 수지진동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해 손가락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어 '손저림', '감각 저하', '손

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증상(백지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진동은 손가락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한다. 그리고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감각에 이상을 초래하거나, 손의 운동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초기에는 손가락 끝이 저리는 증상이나 손가락이 쉽게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혈액순환 장애가 진행되면 갑자기 손가락 마디가 창백해지는 백지증이 생긴다. 이는 일시적으로 손가락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추위'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야외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잘 발생한다. 병세가 악화되면 어깨의 관절 장애, 근육통, 손의 감각 마비 등을 일으키고, 괴사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착암기를 사용하는 광부, 전기톱을 사용하는 벌목공들에게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철판의 표면을 갈아내는 그라인더와 조립공정에서 사용하는 임팩트렌치 사용자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진동공구를 사용할 때는 진동방지장갑을 착용하고,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작업 중간에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다. 🐾

수지진동증후군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한다.
-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
- 손가락이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한 적이 많다.

TIP

수지진동증후군, 이렇게 예방해요!

- 안전장갑(진동 방지 장갑)을 사용한다.
- 진동을 분산시키는 방진장치를 쓴다.
- 작업 시 적당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해준다.
- 혈액순환에 신경 쓰고 손이 차지 않게 해준다.

